

부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자

김정식 / 본회 비상근 부회장
대덕전자(주)사장

금년 한해도 전자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창출하신 전자공업인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기업의 안녕을 기원한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생산과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32.7%를 차지하는 전자산업의 위치는 국내산업의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70년 겨우 수출비중 7%였던 것에 비하면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 전자공업인들의 땀으로 이룩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전자공업의 발전과 도약의 기반은 전자산업초기부터 SET와 더불어 참여해 온 전자부품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공업에 있어서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면에서 '88년 41.4%에서 '92년에는 무려 50.7%로 급격히 높아졌다. 금년도에도 지난 8월까지 전자제품 총생산금액의 51.5%를 기록하고 있는 바 전자부품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공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전자

부품 전체의 27.5%가 반도체부품으로 대부분 중소기업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빈약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해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와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 국내 고임금추세, 기술 및 생산인력의 부족현상으로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많은 전자회사들이 엔고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동남아시아 등 대외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도 불가피하게 해외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88년 이후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전기전자제품업체는 1,147개사로 전체 투자건의 50.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일본의 소니, 산요, 마쓰시다 등 Set Maker들은 싱가포르에 해외사업 본부를 두고 주변 동남아국가들을 해외생산 기지화 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의 현지 구입을 증대하고 물류를 개선하므로써 세계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있다.

전자부품의 수요시장으로서 보다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지역은 '80년대 후반이후 전자부품산업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 되었다.

특히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기존 전자공업국 외에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88~'92년까지 연평균 13.1%, 20.2%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전자부품 생산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에 진출한 Set Maker들의 부품 현지 구입 비중도 50%내지 90%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자부품산업이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생산 요소면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장려 정책을 촉진함으로써 기술과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여 가장 잘 팔리는 곳에서 판매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WTO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리라고 본다. 이러한 국제조류 속에서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자부품산업의 국제화로 수요를 따라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전략화가 시급하지만 고급제품의 국내 생산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중저가 제품 부문의 해외이전을 촉진하는 양동전략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보여준 좋은 예처럼 자체 기술 개발능력을 확보하는 길만이 무한 경쟁에서 이기는 길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INSIGHT를 가진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배순훈/ 본회 비상근 부회장
대우전자(주) 사장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자라고 한다.

사회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동력이 바로 기술이다.

때로는 기술자체의 이유에 의해 발전하고 때로는 인류사회의 요구에 의해 발전하기도 하면서 기술은 생활·문화 변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기술자는 인간생활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자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O.S.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기술자들은 혼자서 결과를 만들 수는 없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것을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다.

세상은 1등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인 일과 단순 반복적인 일 사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선 핵심적인 문제를 잘 인식해야 한다.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Insight)이다.

성수대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사항은 피로하중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 통찰력은 금속 파괴에 관한 과학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지식은 공학박사를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량은 파괴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유지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과학지식을 동원하여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통찰력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행동하겠다는 의지에서 생긴다.

일단 문제점이 파악된 후 문제해결 단계에 들어가도 통찰력(Insight)이 필요하다. 교량의 수많은 연결 용접부위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X-Ray 검사도 있고 육안으로 검사할 수도 있으며 마그나 플러스(Magna Flux) 검사를 통하여 표면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해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야 한다.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문제해결의 통찰력이 있어야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은 한번 익숙해지면 반복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르다. 계속 새로운 여건에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할 뿐더러 문제해결에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창조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안목(Insight)이 필요하다. 안목이란 오랜 경험에 의하여 쌓이는 것으로, 경험은 의도적으로 시도해보는 데서 생긴다.

의도적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의 관건은 미래의 핵심기술 확보 여부에 달려 있는데,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가 그 사회의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Insight를 얻기 위한 기술자들의 분발이 더욱 필요할 때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김주용 / 본회 비상근 부회장
현대전자산업(주) 사장

최근 우리주변에서는 국가간 Round 형성과 관련된 “WTO체제”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업체를 비롯하여 생산현장에는 어느 곳이나 가릴 것 없이 새로운 용어의 감각을 생활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94년 한해는 국내 기업체들 뿐만 아니라 “나”라는 개인에게도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당위성을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80년대 말부터 임금인상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성장부진을 보이던 국내 전자산업은 '93년부터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엔고현상의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이 활기를 띠고 내수 부문도 가전과 산전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 현상과 함께 '91년 이후 섬유산업을 제치고 수출 1위의 산업으로 부상한 국내 전자산업은 수출중심형인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되었으며, 특히 올해 한해동안 반도체 분야가 단일 품목으

로는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섰고 메모리 등 몇개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위치를 확정한 뜻깊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되어지지만 '95년 이후 다가 올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WTO는 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등 보다 폭넓은 규율범위와 강력한 집행력을 갖게되며 이러한 WTO체제 하에서 그동안 기업을 지원해 왔던 각국 정부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것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기술개발, 교육 및 사회 간접자원 부문에 국한될 것이며 각 기업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립해야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몇가지 의견을 제시코져 한다.

첫째,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

다. 최근 우리는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 동남아, 남미의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산 및 판매기지의 해외이전과 함께 고부가가치의 제품의 비중을 높이고 BPR 등을 통한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개발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로열티의 상승, 기술습득의 어려움, 모방제품에 대한 제재로 수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그동안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드라이브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산업기술 개발자금의 확대, 기술개발 지원기관의 설립, 산업기술진흥 체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선진 기업과의 기술협력체제 구축,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등을 통해서 정부의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적극적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위스의 유니온 뱅크(UBS)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태적 측면에서 가용자원의 증가율과 성장력을 종합한 한국의 미래(2005년~2010년) 국가경쟁력을 세계 1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정보인프라의 구축 시급



이정식/ 본회 비상근 이사
(주)삼보컴퓨터 사장

다사다난했던 '94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정보산업체 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를 통틀어 올해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는 멀티미디어와 초고속정보고속도로라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두개의 개념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뉴미디어이다. 또 한편에서는 멀티미디어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대표한다는 등 여러가지 시각으로 예상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주도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증대되는 정보욕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오락을 즐기려는 성향 때문에 멀티미디어는 시장에 선보이자마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거기에 초고속정보고속도로라는 대역사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20세기의 마지막 사업이자 21세기를 이어가는 첨단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기술발전에 불과하고 뒷받침할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나 도덕규범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성수대교의 붕괴와 계속되는 대형사고의 빈발로 이를 시공한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부실 이미지 때문에 몸살을 앓은 한해라고도 볼 수 있다.

때문에 부정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무한정 실망스럽고 미래가 어두워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패상과 잘못된 부분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론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늦었지만 우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곳을 수술하고 바로 잡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본다.

타 산업 분야에 비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산업도 이러한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외산메이커의 대대적인 국내시장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와 최근의 가격과 괴 현상으로 시장은 커졌지만 이와 관련한 업체들의 어려움으로 위와 같은 현상들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삼보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노력과 책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한번 우리 주변을 뒤돌아 보게 된다.

'90년대 들어오면서 분명해진 사실 중 하나는 전세계 각국이 정치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를 우선하고 움직인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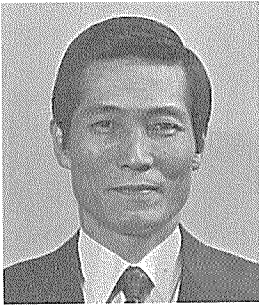
특히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에 뛰어들어 그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도도히 항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 선결해야 할 문제의 열쇠는 정보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정보인프라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열쇠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시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한때는 컴퓨터 관련산업이 먼저 시작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 미개척지의 금맥과도 같았으나 이제는 땀을 흘려야 할 때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하는 정보산업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빨리 읽고 반영하는 정보산업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 진 것이다.

국제화라는 산을 타고 넘는 정보산업체와 이를 알게 모르게 지원하고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풍요속의 빈곤을 느낀 한해

이형도 / 본회 비상근 이사
삼성전기(주) 사장

올해 국내 전자산업은 전반적인 경기호전에 힘입어 1분 1초가 아까운 심정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뿌듯함을 맛보았고, 전자부품산업도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두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

그런 와중에 신엔고 현상이 부품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으며, 실제 엔고의 지속으로 직수출은 물론 로칼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우리는 획기적인 엔고 대응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결과는 수출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 시키며, 수입원재재의 국산화와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당사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일본내 대형거래선을 개척함으로써 사업구조를 한 단계 높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필자는 금년에 여러차례 일본에 가서 그곳의 전자업계 인사들과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엔고의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인상

을 받았다.

일본 부품업계는 지난 '85년의 플라자합의 이후 10년 동안 엔고에 대한 적응력을 구축해 온 결과, 이제는 아무리 높은 엔고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는 경영자가 많았다.

실제로 야마이치 증권이 일본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엔고로 인한 이익증감 환율(경상이익의 증감분기점 환율)을 조사한 결과, 세트업계가 97엔 인데 비해 부품업계는 89엔으로 나타나 부품업계의 대응력이 세트업체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40엔대에도 이익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엔고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진 몇몇 회사들의 경우, 엔고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함은 물론 10% 이상의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회사들의 강점은 사업분야에서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교섭시에 이점을 활용해서 수출금액의 대부분을 엔화 배이스로 결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사업분야가 막대한 장치산업일 뿐만 아니라, 오

랜기간 축적된 기술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저임금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내 생산공동화의 회피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몇몇 사장은 "엔고로 생산거점을(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다.

올해 일본 부품업계의 최대 이슈는 일본 내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공동화 회피의 우등생」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현재는 컬러 LCD와 이차전지가 대표적인 제품으로 손꼽히는데, 제3, 제4의 우등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일본 내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체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 부품업계가 단기적으로는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극한의 원가절감을 추진해서 엔고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지향적 경영」또는 「량아닌 質경영」을 전개해서 일본 국내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핵심부품을 창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엔고 대응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은 엔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국내 부품업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남의)기술을 살 수 있는 대가가 막대한 로열티가 아니라 (나의)기술 뿐이라는 현실 속에서, 매출과 이익이 느는 풍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는 건 나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때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금년 한해 동안은 작년말에 타결된 UR 협정으로부터 시작된 신 국제무역질서와 무한경쟁시대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 미래 예측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시장개방의 급진전과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라 경쟁요소와 경쟁의 강도는 우리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능동적인 대응과 혁신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를 예리하게 전망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창조적 경영활동만이 새로운 기업환경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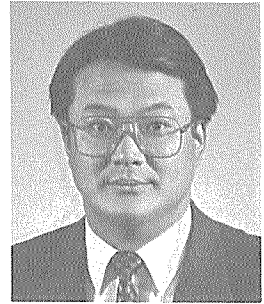
둘러켜 보면, 국내 전자산업의 수준이 불과 20년 전만해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었지만, 이제는 세계 4대 전자산업국으로 발돋움하였고, '96년도를 기해서 OECD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은 전자공업인 모두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세계 경기의 회복과 엔고의 효과에 힘입어 국내 전자시장의 성장률이 16.4%에 달하는 매우 양호한 실적을 올린 것은 무엇보다 큰 수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만 없는 것은 중국 및 동남아산의 값싼 제품이 그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기 때문이며, 선진국의 기술보호와 무역장벽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경영활동이 필요한 시기

변동준/ 본회 비상근 이사
삼영전자공업(주) 사장



현실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저해요인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 뿐이며, 이를 위해 본인은 몇가지 전략적 사고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세계 일류 기업과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오로지, 품질 좋고 값싼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는 기업만이 고객만족을 시키는 기업이며,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객이 회사를 신뢰하고 제품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품질, 가격, 납기, A/S에서 앞서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둘째로는, 기술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적극투자하여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Set업계의 방향은 제품의 소형화, 개인정보화, 정보종합화(VAN, LAN), 정보통신 산업의 활성화, 디지털화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부품업계의 방향은 부품의 소형, 박형, 경량화, SMD화 및 복합부품화 등으로 전개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대의 흐름에 낙오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인력 육성 및 정보력 강화 등의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조직의 창의적 풍토와 신사품을 이루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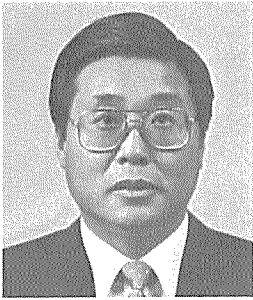
기업의 조직구조와 조직의 혁신이 없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흔히, 대기업병으로 이야기되는 부문주의, 조직과 인력의 Bubble 현상, 관리의 비대와 관료주의적 조직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

즉, 고객만족, 정보화, 국제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대응 전략조직으로 조직을 재구축(Reengineering)하고 유연하고 탄력있는 조직(Synergy & Flexibility)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흔히, 변화는 위협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여 내년도에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자공업인들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세계화-품질, 기술, 시간의 경쟁우위

황인길/ 본회 비상근 이사
아남산업(주)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미명하에 첨단기술력을 무기로 자국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신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질서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나라는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대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00억불 수출을 돌파하였고 연말까지 127억불에 이를 전망이어서 모름지기 한국수출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세계 3위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반도체 완성분야와 메모리분야의 세계 최고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당당히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장비 및 재료의 대외 의존

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이미 일본 스미토모사의 공장 폭발사고시 심히 우려한 바 있는 무기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메모리의 특정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우리의 반도체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고 또한 커다란 성과를 올린 것이기는 하나 이제는 비메모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여야만 명실상부한 반도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우리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에서 양성되는 반도체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의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설계인력의 배양은 전무하다시피해 미국이나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넷째는 반도체분야에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하여야 한다.

우리의 성과는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개의 특정 회사에서 이룩한 기적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국인 미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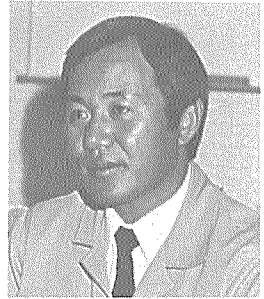
나 일본의 반도체 기업의 수와 규모를 볼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쟁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이미 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고 성패가 불분명한 소위 CRAZY BUSINESS 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결단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서로의 역할 분담으로 국내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외국 선진기업과 당당히 겨룰때야만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일본이 세계 제일의 자리를 고수하던 미국으로부터 선두자리를 탈환한 것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바 크고 이에 놀란 미국 또한 민관의 합동 노력으로 일본으로부터 선두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타산업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법의 돌' 혹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우는 것처럼 향후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첨단산업이며, 우리에게 있어 세계시장에서 몇 안되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지금은 전체 산업의 형평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산업이 하향평준화를 이루기 보다는 특성의 가능성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그를 기반으로 타 산업으로 전파하는 길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굳게 다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지방자치제 및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우리 전자 업체의 대응 전략



조석구/ 본회 비상근 이사
(주)인켈 회장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할 시점에 왔을 때보다 심장의 박동은 빨라진다. 그 이유는 항상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과업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김일성 사망이라든가, 지존파사건, 성수대교 붕괴 등 악재가 잇달아 터져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요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만족은 가지고 있었기에 또 정상적으로 돌아와 앞을 보고 달릴 수 있었다.

그 능력은 기지의 사실이지만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만이 지녀 온 환경적응 능력이다.

이러한 환경적응 능력이 요즘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95년이면 민주정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95년 6월 27일이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건국이후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공동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자기의 부담에 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경제 체제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조성하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 계획은 국가단위로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고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 지역단위의 경제개발이 강화될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지방 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꾸러나갈 작은 정부를 지탱해 줄 재정을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역 내의 소득증진을 위해 각종 경제 개발사업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아래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역소득 증진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 될 것이고 지역 주민의 공동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개발이 촉진되면서 주민의 환경 또는 복지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

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업종은 현재 보다 한층 존립기반이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제화의 주역이자 직접 당사자로 나서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내년의 본격 지자체 실시를 계기로 훨씬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자치단체가 종합무역상사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도 국제화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제화는 아직 광역 자치단체에 머무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산된 단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지방의 국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 무역질서를 관장해 오던 GATT체제가 7년이상 단순한 합의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WTO는 무역과 관련한 각종 쟁점을 통괄하는 조직체라는 점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WTO체제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일반 협정, 지적재산권 등 이른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 규범을 도입하고 농산물·섬유 등 그동안

GATT에서 일탈해 있던 분야를 다자간 체제 하에 복귀시킴으로써 관장범위를 매우 넓히는 한편, 분쟁해결 절차와 반덤핑 등 규범분야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경제의 흐름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와 WTO체제 출범이 우리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전자산업의 철저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첫째, 기술경쟁력의 상품화이다. 전자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바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으며 타 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무리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하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건으로 먼저 생산하지 못하면 기술력, 또는 제품경쟁 우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는 세계의 우수제품들이 우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

따라서 뛰어난 제품은 어느곳으로나 팔려 나간다. 다소의 관세장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

다. 전자산업에는 후발주자란 있을 수 없다. 만약 있다손 치더라도 그 기간만큼 자기 살을 깎아 내릴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라.

제품이 지역적 성공을 거둘려면 그 지역의 기호와 습성, 소득수준 등 그나라 문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누구나 만들어서 팔려고 하지만 반대로 완전한 상공을 거두기도 어렵다.

셋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라.

'80년대까지만해도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분야에서 일본 기업에 뒤처지던 미국기업들이 '90년대들어 눈에 띄게 경쟁력을 회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말해서 적극적인 감량경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했으며 관련적자 기업정리 및 대규모 M & A를 통해 주력기업을 육성하여 사업의 집중화를 꾀하였다.

뿐만아니라 뛰어난 기초과학 바탕위에 품질과 생산효율성을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넷째,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두려웠던 비교우위의 상실에 따른 패배적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며 우리에게 부족하고 불리한 여건은 가속화되어가는 세계화 개방화 물결 속에서 얼마든지 외부여건을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는 전향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인력에 대한 투자시각을 재정립 해야한다.

앞으로의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자원이나 값싼 인력, 그리고 자본 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한 국가가 보유한 인력의 질과 이들이 창조해 내는 기술과 지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향후에는 더욱 소비자의 색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 갈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색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일본의 마쓰시다가 내세운 「고객과 가깝고 친근한 기업」, 「고객에 즐거움을 주는 기업」, 「고객과 같이 번영하는 기업」 전략처럼 소비자와 함께 한다면 WTO나 지방자치제도 지혜롭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을 꿈꾸며



곽정소 / 본회 비상근 이사
한국전자(주) 사장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지난 몇년간의 어려움을 벗어나 경기가 성장세에 접어든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불황국면에 빠져 있던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WTO의 출범으로 인한 세계 무역 질서 재편과 교역량의 증대에 힘입어 그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국내 경제 또한 세계 경기회복과 엔고로 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원가 경쟁에서는 물가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국제금리의 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술경쟁에서는 점차 가속화되는 정보화 시대의 진전으로 우리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을 향한 선진업체의 기술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과거 국내 전자 기술도입에 주력하던 후발업체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쫓아와 우리와 경쟁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국내 전자산업은 '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하여 '88년 국내 전체 수출 1위의 산업으로 부상한 이래 줄곧 성장의 가도를 달려왔다. 총생산액 384억불로 세계 전자산업의 5.3%를 차지하면서 세계 8위에 오른 국내 전자산업계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해외 각지로 생산 및 판매, 나아가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속속 현지화시키고 있으며 몇가지 품목에 있어서는 세계 제일을 자랑하며 선진업체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우리 전자산업은 또다른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국제화를 넘어서 세계화의 물결이 전체 기업 환경을 좌우하고 있으며 전자산업 각 사업분야별로 기술발전과 그 제품화가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국제화 시대에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나, 그 이면에는 자국경제 보호라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가 자리잡고 있어 국가들로 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기업 경영에 임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세계화 곧, 지구촌 시대에서는 고유의 기술과 노하우가 없는 기업에게는 더 이상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 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당사에서는 전문화, 집중화된 사업전략 추진을 위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경영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회사로서의 목표와 일관되게 2000년대 트랜지스터 생산 세계 1위라는 목표를 정하고 전임직원이 한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술을 완

전 내재화 한다는 사고와 함께 전자산업의 변화를 앞서가는 시장분석과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때다.

과거 이같은 활동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어 오기는 했으나 최근과 같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일임이 사실이다.

이제 전자산업은 반도체, 통신, 컴퓨터, 산업전자 등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개별 사업군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저마다의 목소리가 커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매스컴을 통해 이루어진 시장 흐름에 맞추어 가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시장에서 당황하기 일쑤이고 우후죽순처럼 경쟁대열에 뛰어들고 있어 실지 내용보다 포장 이 더 요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하나가 되어 서로가 가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올바른 시장 수요 예측과 기술 개발, 그리고 이를 상품화하여 판매량을 확보함에 있어 그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